



군종주보

2024년 11월 24일(제1221호)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상시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목상할 것들”

오늘은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전례력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의미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킵니다. 세상 끝 날에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깨어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 중 ‘사말’ 교리라는 것이 있죠.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죽는다는 것으로, 사람도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하느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되지요. 사말 교리는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가르침이며, 곧 네 가지의 끝, 죽음·심판·지옥·천국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례력의 마지막인 오늘은 인생의 끝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심판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뵙고 살아생전 우리의 행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무섭게도 들리지만, 정의로운 심판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불의한 세상에 대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만약 정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힘없고 선한 사람들은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할 것입니다. 악하고 강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그것이 세상의 정의가 되겠죠.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일들을 낱알이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은 오늘도 선한 양심에 따라 착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큰 위안과 미래의 희망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순간에 정의는 영원히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우리가 목상하고 실천해야 할 삶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 나는 곤경에 처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실천했는가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지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서로에게 신경 안 쓰는 것이 국룰이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관심마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 나는 누군가를 심판한 일이 없는가입니다. 우리의 죄는 등 뒤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죄는 내 눈앞에 있지만 우리의 죄는 등 뒤에 있어 볼 수 없죠. 결국 모두가 하느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잊고 남을 심판한다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심판은 하느님의 역할인데, 인간 자신이 대신 하려는 그 교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의 비유이죠. 선과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느님의 역할인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원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잘못에 대한 심판은 하느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남을 심판하는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하느님의 뜻대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교회는 ‘히틀러’조차도 지옥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이란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을 거부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지옥을 없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 누구도 지옥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어떤 큰 죄를 지었어도 하느님의 사랑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 말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을 낙인찍거나 지옥에 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들과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도 사랑만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성(세례지요한) 신부
성당오리장(해병대 제2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환호송

다니 7,13-14
◎ 주님은 임금이니, 위엄을 입으셨네.
묵시 1,5ㄱ-8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야! ◎

복 음
영 성 제 송

요한 18,33ㄴ-37
주님이 영원한 임금이니,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열이홉 번째 시

교우들이 잡혀 감옥으로 끌려간 마을에서는 포졸들이 모든 것을 약탈하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친척이나 천주교 신자인 친구들을 피신시켜 주었던 외교인들도 천주교 신자와 같은 운명을 당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의 주민들은 같은 고장에서 이웃으로 함께 사는 천주교 신자들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즉 천주교 신자들이 자기들 마을에서 안전하게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몰아내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이 대단히 많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 둘 수도 없고, 일일이 모두 다 재판에 회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깊은 산골짜기마다 꼭꼭 숨어 사는 천주교 신자를 모두 체포할 뜻 없어 보입니다. 그 대신에 포졸들을 여기저기 사방에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천주교 신자들을 혼란케 하고, 또 주민들을 선동하여 천주교 신자들을 핍박하도록 충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 방법이 우리들에게는 더 가혹하고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체포된 17명 중 3명은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왜 석방되었는지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아마 배교한 것 같습니다. 2명은 왕도(서울)로 압송되었고, 한 명은 이 도의 수도인 대구(大邱)로 압송되어 감옥에 갇혔는데, 요즘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도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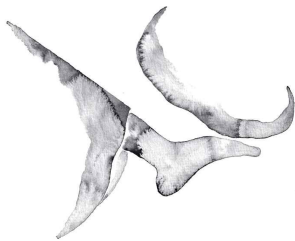
그 도시에 아주 열심히 노파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리를 설명하여 많은 신자들로 이루어진 교우촌을 세웠고, 철저한 교리 교육과 신심의 모범으로 그 교우촌을 지탱하여 왔습니다. 그 노파는 체포되어 문초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용맹히 증거한 후 혹독한 매를 맞고 그 상처 때문에 순교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히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임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어른



지친 이를 위로하고,
아픈 이를 안아주는.
하여, 잠시
기대 수 있던 이.

하여, 잠시
의지할 수 있는 이.

그런 어른을 기다립니다.

그런 어른을 나는 알지.

아니,

슬픈 이를 위로해 주고,
약한 이를 돌봐주는.

우리 모두가
그런 어른이 되어야겠지요.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미할리 문카시(Mihály Munkácsy, 1844년~1900년) / 1881년경 제작
 캔버스 위 유화(Oil on canvas), 417x636cm / 헝가리 국립 미술관, 부다페스트

높이가 4미터, 폭이 6미터가 넘는 이 거대한 그림은 인물들이 관객의 크기로 그려져 현실감을 더해 주는 작품이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며, 빌라도 앞에서 심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유하는 군중 속에 -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에 - 함께하고 있다. 비록 심문을 받으시는 입장이지만 빛나는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당당하고 위엄있게 서 계셔서 마치 승리자처럼 보이는 반면, 차라리 심문하고 있는 빌라도가 위축되고 당황한 듯이 보인다. 다양한 나이와 복장(신분을 상징)을 한 관객들은 어떤 이는 동요하고, 어떤 이는 놀라워하며, 또 어떤 이는 관망하면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입장과 반응을 취할까?

“네가 임금이려고 내기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요한 18,37)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 위한 미사 - 그리스도왕 대축일: 육군본부 박근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백호(제36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1월 24일(주일)

- 한국가톨릭원목자협회

2024년 추계 상임위원회의

때·곳: 11월 27일(수) 15:00, 화상회의

“**화해와 자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1요한 1,9)